

## 구조조정이 경기회복을 가져오고 있는가

채 창 균 ckche@hri.co.kr ☎ 724-4031

구조조정과 경기회복은 어떤 관계인가? 그간 양자간에는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그간의 경기 위축세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있었는가 하면,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이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경기회복세가 구조조정을 도와줄 것이라는 주장이 다수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구조조정이라는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는 체력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구조조정만을 강조하던 정부도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의 동시 추진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였고, 경기부양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경기의 회복 양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조조정의 진전에 따라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는 역의 인과관계가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수술받기 위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체력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수술로 환부를 도려내었더니 환자의 기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직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소비 심리가 다소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과 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 증가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생산이 위축세에서 벗어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98년의 지나친 생산위축에 대한 반등으로 총수요 증대에 비해 생산 회복세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재고 감소 폭이 대폭 축소되었고 그에 따른 경제성장 기여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서 고용불안감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당분간 고실업 사태가 지속될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최근의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 1/4분기 중 전국 지방노동관서, 산업인력공단 등에 등록된 구인 인원이 약 23만명으로 96년 이후 분기별 규모로는 가장 많았다. 극심한 구조조정

---

과정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제 경쟁력을 되찾아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얘기다.

또 임금 하락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도 소비 심리의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1~2월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약 1백 5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전년동기보다 3.8% 늘어났다. 그간 하락세를 보이던 임금이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다. 임금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고용불안 현상이 주춤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금리 하락에 따른 금융장세적 성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구조조정을 치러낸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살만한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최근의 주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주로 우량기업들이라는 점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주식시장의 활황세가 기업의 유상증자를 통한 설비투자 제고로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아 실물에 비해 너무 앞서나가는 거품의 징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주식시장의 활황세가 소비 심리 회복세를 부추겨 실물이 살아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음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구조조정 초기에는 경기 위축세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는 오히려 경기회복세를 복돋우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 점에 비추어봐도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제일의 과제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구조조정이 올바른 방법론에 기초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절한 리더쉽을 발휘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어느 저널리스트의 말처럼 정부에게 돈과 힘을 주는 것은 틴에이저들에게 위스키와 자동차 키를 동시에 주는 것과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시장을 통해 구조조정이 항구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